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롯을 구출함

[창세기 14:1-2]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북방의 네 나라의 왕들은 남방의 소돔 성 주위의 다섯 나라 왕들과 전쟁을 했다. 시날은 바벨론의 수도 바벨과 아브람의 원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가리키며 오늘날 이라크 동부 지역이다. 엘람은 페르시아반부에서 카스피해까지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키며 오늘날 이란 서부 지역이다. 엘라살과 고임은 그 주위에 있었을 것이나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다. 남방의 다섯 나라들은 염해 남부 지역에 있었던 것 같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단지 “벨라 곧 소알”이라는 표현은 벨라가 옛날 이름이고, 소알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당시 사용되었던 이름임을 보인다.

[3-4절]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북방의 연합군들이 남방의 왕들과 전쟁한 곳은 싯딤 골짜기이었다. ‘싯딤’이라는 원어는 ‘들판’이라는 뜻이며 그곳이 본래 들판이었음을 보인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라는 표현은 들판이었던 싯딤 골짜기가 후에 염해로 변했음을 보인다. ‘염해(鹽海)’는 ‘소금 바다’라는 뜻인데, 그곳의 물은 보통 바닷물보다 10배나 더 짠 30-33%의 소금물이라고 한다.<sup>1)</sup> 그 전쟁의 동기는 남쪽 나라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기 때문이었다.

[5-7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

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르바(거인), 수스, 엠, 호리는, 신명기 2장이 증거하는 대로, 옛날에 요단강 건너 동북쪽부터 요단강 남단 염해 동쪽과 남쪽, 즉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역에 살았던 족속들이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은 요단강 동북쪽 비산 땅에 있었고, 함은 갈릴리 호수 동쪽 계술 땅이며, 사웨 기라다임은 요단강 동남쪽 르우벤 지파 땅에 있었고, 세일산은 에돔 지역이다. 엘바란은 에돔의 남단, 즉 홍해 북단 항구이며, 엔미스밧은 가데스 바네아일 것이다. 하사손다말은, 역대하 20:2에 의하면, 염해 중 서부의 엔게디이다. 다시 말하면, 북방 연합군은 요단강 동북쪽 땅으로부터 요단강 남쪽 염해 동부와 남부와 서부를 쳤던 것이다.

본장은 그 내용의 역사적 성격을 잘 나타낸다. 옛날의 나라들이나 성들의 이름과 왕들과 족속들의 이름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R. D. 윌슨은 본장의 왕들의 이름이 고고학적 발굴 내용과 일치함을 증거하였다.<sup>2)</sup> 또 본장에는 창세기를 쓴 모세의 보충적 설명이 여러 번 나온다. 2절에는 “벨라 곧 소알,” 3절에는 “싯딤 골짜기 곧 염해,” 7절에는 “엔미스밧 곧 가데스,” 8절에는 “벨라 곧 소알,” 17절에는 “사웨 골짜기 곧 왕곡(왕의 골짜기)” 등이 그것이다.

[8-12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북방의 네 왕들의 연합군이 남방의 소돔성과 그 주위의 성들의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접전한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역청’(케마르)은 석탄

1) 염해는 크기가 남북이 78km, 동서 18km로 제주도의 절반 넓이 정도이며 지중해 해면보다 400m 낮은 곳으로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계곡이라고 한다. 이찬영, 성경지리총람 (서울: 소망사, 1993), 198쪽.

2) R. D. Wilson, *Is the Higher Criticism Scholarly?*, p. 20.

이나 석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 콜타르, 피치’ 등을 가리킨다. 그 전쟁에서 소돔 왕과 그 동맹국들은 패전하였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다. 소돔에 거했던 롯도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재물들도 다 빼앗겼다. 롯은 큰 낭패를 당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도시 소돔에 내리신 경고의 징벌이며 또 인간적 생각과 욕심을 따라 요단 들을 선택했고 심히 죄악된 소돔성에까지 내려가 거주하며 그들과 교제했던 롯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사람은 물질적 유여함을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침략자를 보내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좋은 것들도 빼앗길 것이다.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은 오직 섭리자 하나님께 달려 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도망쳐 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히브리)이 나온다. 이 말은 ‘에벨의 자손’이라는 뜻과 더불어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 명칭은 아마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거주했던 아브람에게 주위 사람들이 붙여준 것일 것이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하였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이며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이었다.

**[14-16절]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은 평소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가신(家臣)들 318명과 함께 롯을 구출하기 위해 북방 나라의 왕들을 뒤쫓아갔다. 그와 동맹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도 거기에 참여하였다(24절). 아브람은 평소에 자기 방어를 위해 가신들을 훈련시켰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체력도 단련시키는 것이 좋고, 세상에서는 군대도 필요하고 경찰력도 필요하다. 아브람은 단까지 쫓아갔다. 여기서 ‘단’은 사사 시대에 세워진(삿 18:28-29) 도시를 가리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단은 사사 시대에 세워졌을 뿐 아니라, 북방 왕들은 요단 동쪽의 바산 길(다메섹—랍바)과 왕의 대로(랍바—보스라—엘랏)로 내려오고 올라갔을 것이며 그 길은

그 성을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단은 길르앗에 속한 한 성읍을 가리킬 것이다.<sup>3)</sup>

아브람은 가신들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했고 다메섹 북편에 있는(원문의 뜻)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긴 재물과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들과 사람들을 찾아왔다. 이것은 그의 조카 롯을 위해 자기 목숨의 위험을 무릅썼던 아브람의 사랑과 용기를 잘 나타내준다. 아브람의 믿음은 헌신적 사랑과 용기로 잘 표현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소극적 태도보다 아니고 적극적 참여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지만(사 37:36),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자연적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나 충실해야 하고 자연적 수단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행 27:30-31).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내용을 다 믿자. 창세기는 역사적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10-14절), 7-8장은 홍수가 시작된 연월일과 물이 땅 위에서 마른 연월일에 대해 언급한다(7:11; 8:13-14). 10장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들과 그들로 인해 퍼져 나간 열국들의 이름들에 대해 자세히 증거한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 12장 이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한다. 창세기는 첫장부터 끝장까지 역사적 성격을 가진다. 사실 성경 전체가 그러하다. 성경은 절반 이상이 역사이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믿자.

둘째로, 롯은 고난의 징벌과 기적적 구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되었던 소돔 성과 거기 살며 그들과 교제했던 롯에게 고난의 징벌을 내리셨다. 그러나 죄와 부족에 대한 징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긍휼히 여기셨고 기이한 구원을 주셨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시 119:71).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은 오직 섭리자 하나님께 달려 있다.

셋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과 용기를 가지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사용하셔서 롯을 구출하셨다. 아브람은 평소에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가

3) 카일과 델리취는 여기서의 단이 신명기 34:1에 나오는 길르앗의 단이거나 사무엘하 24:6의 다나안(아난의 단)을 가리킬 것이라고 본다. C. F. Keil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I. *Pentateuch* (1864), I, 206.

서 뜻을 구출하였다. 그것은 그의 사랑과 용기를 보인다. 우리는 어려움 당한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도울 힘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 하는 경건의 훈련과 더불어 체력 단련도 하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다 준비하고 대비하여 처리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주일오후설교**    **기업 회복에 관한 법**

[레위기 25: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은 기업 회복의 법에 기초가 되는 진리이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소유주이시다. 그러므로 토지 곧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권은 위탁적인 개념일 뿐이다. 인생은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날 것이다. 다윗도 후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대상 29:1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며, 회년이라는 기업 회복의 제도를 주신 것이다.

[24-28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회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회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르기’라는 원어(개울라)는 ‘되사기, 되찾기’(redemption)라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이 그의 기업의 일부를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은 그를 위해 그것을 사서 되찾게 해야 했다. 또 그것을 판 사람이 그것을 살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되살 수 있었다. 또 살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회년이 되면 팔았던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신 복된 규례이다.

[29-31절]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1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회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레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회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집의 경우, 성벽이 있는 성안의 집과 성벽이 들리지 않은 촌락의 집의 규례가 달랐다. 사람이 성벽 있는 성안의 집을 팔았으면, 판 지 만 1년 안에는 되살 수 있지만, 그 기간 안에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되어 영영히 그의 소유가 되며 회년에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집은 나라의 토지와 같이 되살 수도 있고 회년에 돌려보내어야 했다.

[32-34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회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집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되살 수 있고 만일 레위 사람이 되사지 못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집은 회년에 돌려보내어야 한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의 성읍의 집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기 때문이었다. 또 그 성읍의 들의 사면(四面) 밭은 레위인의 영원한 기업이므로 팔 수 없었다.

[35-38절] 네 동족이 빈한(貧寒)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난한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이웃에 대해 나그네를 돕듯이 도와야 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야 했다. 고리대금은 물론, 저리대금도 합당치 않았다.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면, 그냥 주든지 아니면 무이자로 빌려주어야 했다.

[39-43절] 네 동족이 빈한(貧寒)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군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회년까지 너를 섬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군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의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팔려온 동족을 종(에베드)처럼 엄하게 부리지 말고, 품꾼(사키르)(a hired man)(NASB)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대하며 일을 시켜야 하였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그의 신분뿐 아니라, 그의 모든 기업은 회복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21:1이나 신명기 15:12에 보면,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하고 제7년에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만일 희년이 끼면 그는 그 해에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또 희년에는 단지 그의 신분뿐 아니라, 그의 모든 기업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품꾼이므로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품꾼’이라는 원어(아비다인)는 ‘나의 종들’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야 한다.

[44-46절]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주위의 이방인들 중에서는 영구적인 종을 얻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동족인 종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명하신다. 옛날에 종은 주인의 소유이었고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살 수 있었고 또 돈을 주고 산 종들은 영원한 종이 되어 자녀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였다.

[47-55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 . .

하나님께서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여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이방인에게 팔려 종이 된 경우 그 형제들 중 하나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근족이 그의 종의 신분을 속량(贖良)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희년까지의 연수를 따라 그의 몸값을 주고 그를 속량해야 한다. 물론 종이 된 자 자신이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속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은 히브리 종을 품

꾼같이 여길 것이며 그를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종들이 속량되지 못한 경우에는, 희년에 그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품꾼(에베드), 곧 ‘그의 종임을 강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본문의 진리를 요약하면, 첫째,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영영히 팔지 말라는 것과,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므로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과,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인 종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이자(利子)를 위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그의 친족은 가난한 사람의 기업이나 종의 신분을 속량하며, 그렇지 못하면 희년에 다 회복이 된다는 등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규례들이다.

본문의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로, 우리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자. 이 세상의 참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가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나그네길이다.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며 잘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서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린도전서 7:23, “너희는 값[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자.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 목표가 만유의 회복 즉 천국임을 보일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제도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 아래 있는 자들을 너무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일을 시키되 인격적으로 시키자. 또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자. 또 믿는 교우들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우리는 이자를 받지 말자. 갈라디아서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책안내] ● 김효성, **역대기 강해**. 제2판. 256쪽. 2,500원.

● 김효성, **열왕기 강해**. 제2판. 217쪽. 2,000원.

●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제2판. 233쪽. 2,000원.

● 김효성, **전도서 강해**. 제2판. 88쪽. 1,000원.

●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제2판. 239쪽. 2,000원.

● 김효성, **잠언 강해**. 제2판. 624쪽. 4,000원.